

[ETF/파생 전략]

지수 정기 변경 전략: 유입 강도 +1%의 의미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전망

이번 주 4월 30일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을 확정 짓는 심사기준 종료일.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6개월 간의 일평균 시가총액·거래대금 데이터가 최종 확정되며, 이후 5월 중순 변경 종목을 발표 예정

코스피 200은 편입 3개 종목, 편출 3개 종목 예상. 편입은 달바글로벌, HD건설기계 OCI, 편출은 녹십자홀딩스, GKL, 세방전지 예상. OCI는 4월 27일 누적 평균 시가총액의 순위가 변경되었으며, 경계선에 있음

코스닥 150은 편입 15개 종목, 편출 15개 종목 예상. 편입은 원익홀딩스, 파두, 성호전자, 현대무백스, 미래에셋벤처투자 등이며, 편출은 솔트룩스, 셀바스SI, 엠로, 서울반도체, 제우스 등 예상

심사기준일까지 주가 변동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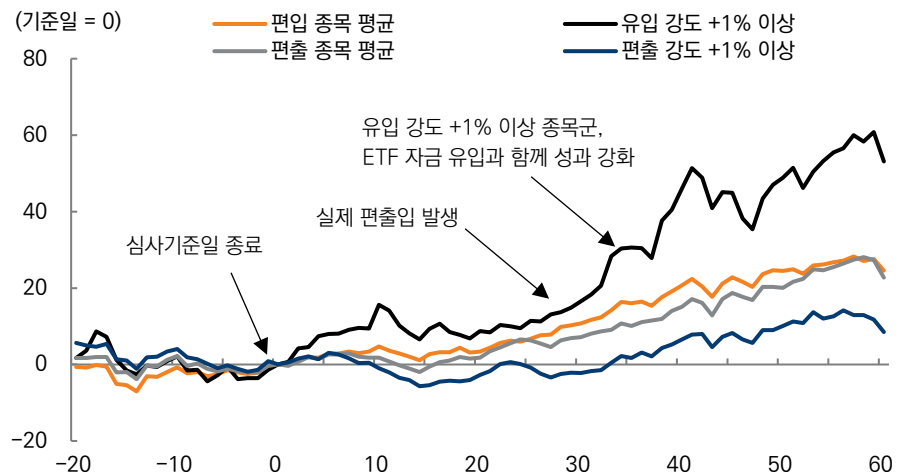
정기 변경 영향 전망 및 전략: 유입 강도 +1%의 의미

2025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식형 ETF의 자금 유입 및 순자산총액이 급증하며 편출입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전망. 코스피 200 지수의 추종 자금은 ETF 규모만 71조 원에 달하며 인덱스 펀드 및 연기금까지 고려하면 약 150~170조 원 가량

이번 정기 변경에서 쟁점은 코스닥 150 지수. 코스닥 150 추종 ETF의 순자산총액이 2025년 말 4조 원에서 2026년 4월(~4/22) 14.6조 원으로 +255% 급증하며 코스닥 종목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예정

2025년 정기 변경 이벤트에서 성과가 가장 좋았던 종목군은 편입으로 인해 유동 시가총액 대비 +1% 이상 자금이 유입된 종목군. 편입 이후 ETF 등을 통해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상대성으로 이어져. 즉, 편입 이벤트가 일시적 충격이 아닌 연속적인 자금 유입원으로 작용한 것. 한편 편출은 일시적 이벤트에 가까워

2025년 정기 변경. 유입 강도 1% 이상 종목의 성과는 평균 +53%, 편입 평균 대비 +29%p



주: 유입/편출 강도는 유동 시가총액 대비 당일 ETF를 통한 유입/편출 금액. 상대 성과는 편입 종목 평균(+25%) 대비,
자료: FnGuide,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전망

3거래일 남은 6월 주가 지수 심사기준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을 확정 짓는 심사기준 종료일(4월 30일)이 3거래일 앞으로 다가왔다. 심사기준일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6개월간의 일평균 시가총액·거래대금 데이터가 최종 확정되는 시점이며, 이후 한국거래소(KRX)가 5월 중 변경 종목을 발표하고 6월 동시만기일(6월 11일)에 지수 구성을 실제 변경한다.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전망

코스피 200은 3종목의 편입, 편출이 예상된다. OCI(A456040)은 4/27 종가 기준 평균 시가총액이 율촌화학(A008730)의 평균 시가총액을 넘어서 포함되었으나, 차이가 적어(39억원) 남아있는 거래일 동안 변화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편입 예상: 3종목

[산업재] HD건설기계(A267270)는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4조 3,377억원 규모로, 산업재 섹터에서 편입될 확률이 높음. 업종내 누적시가총액 비중 90%와 구성종목 순위 76%로 편입조건을 충족함

[필수소비재] 달바글로벌(A483650)은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1조 9,119억원 규모로, 필수소비재 섹터에서 편입될 확률이 높음. 업종내 누적시가총액 비중 76%와 구성종목 순위 64%로 편입조건을 모두 충족

[소재] OCI(A456040)는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6,826억원 규모로, 소재 섹터에서 편입될 확률이 높음

편출 예상: 3종목

[자유소비재] GKL(A114090)은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8,229억원 규모이며, 자유소비재 섹터의 누적시총비중 92%와 구성종목순위 118%로 제외 가능성이 높음

[자유소비재] 세방전지(A004490)는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8,805억원 규모이며, 자유소비재 섹터의 누적시총비중 92%와 구성종목순위 114%로 제외 가능성이 높음

[헬스케어] 녹십자홀딩스(A005250)는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7,181억원 규모이며, 헬스케어 섹터의 누적시총비중 94%와 구성종목순위 127%로 제외 가능성이 높음

표 1. 코스피 200 편입, 편출 예상 종목 (편입: 3종목, 편출 3종목)

시장구분	구분	종목명	섹터	구분	종목명	섹터
코스피 200	편입	HD건설기계	산업재	편출	GKL	자유소비재
	편입	달바글로벌	필수소비재	편출	녹십자홀딩스	헬스케어
	편입	OCI	소재	편출	세방전지	자유소비재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전망

코스닥 150 은 15종목의 편입, 편출이 예상된다. 이는 2023년 12월(17종목)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025년 하반기 이후 코스닥 시장 급등과 중대형주 주가 상승이 배경이다.

편입 예상: 15종목

[정보기술] 원익홀딩스(A030530)는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2조 5,744억원 규모로, 정보기술 섹터에서 편입될 확률이 높음. 업종내 누적시가총액 비중 17%와 구성종목 순위 12%로 편입조건을 충족함. 파두(A440110, 1조 9,267억원), 성호전자(A043260, 1조 5,628억원), 아이티센글로벌(A124500, 9,280억원), 브이엠(A089970, 8,292억원), 대한광통신(A010170, 7,950억원)도 요건을 충족하여 편입 가능성 높음

[헬스케어] 오름테라퓨틱(A475830)은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2조 617억원 규모로, 헬스케어 섹터에서 편입될 확률이 높음. 업종내 누적시가총액 비중 59%와 구성종목 순위 66%로 편입조건을 모두 충족함

[산업재] 현대무백스(A319400)는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2조 6,139억원 규모로, 산업재 섹터에서 편입될 확률이 높음. 업종내 누적시가총액 비중 46%와 구성종목 순위 24%로 편입조건을 모두 충족. 이 외에 세트렉아이(A099320, 1조 4,085억원), 휴림로봇(A090710, 1조 2,423억원)도 요건 충족함

[소재] 삼표시멘트(A038500)는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1조 656억원 규모로, 소재 섹터에서 편입될 확률이 높음. 업종내 누적시가총액 비중 32%와 구성종목 순위 45%로 편입조건을 모두 충족함. 에이치브이엠(A295310, 7,952억원)도 편입 요건 충족

[자유소비재] 삼현(A437730)은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1조 5,978억원 규모로 편입될 확률이 높음. 한라캐스트(A125490, 5,912억원)도 편입 요건 충족

[금융] 미래에셋벤처투자(A100790)는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1조 467억원 규모로, 금융 섹터에서 편입될 확률이 높음. 업종내 누적시가총액 비중 10%와 구성종목 순위 25%로 편입조건을 모두 충족함

편출 예상: 15종목

[정보기술] 솔트룩스(A304100)는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3,355억원 규모이며, 정보기술 섹터의 누적시총비중 70%와 구성종목순위 182%로 제외 가능성이 높음. 셀바스 AI(A108860)는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3,369억원 규모이며, 정보기술 섹터의 누적시총비중 70%와 구성종목순위 181%로 제외 가능성이 높음. 이 외에 엠로(A058970, 4,413억원), 서울반도체(A046890, 4,633억원), 제우스(A079370, 4,885억원), 미코(A059090, 4,976억원)도 제외 가능성 높음

[헬스케어] 바이넥스(A053030)는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4,565억원 규모이며, 헬스케어 섹터의 누적시총비중 83%와 구성종목순위 231%로 제외 가능성이 높음. 원텍(A336570, 6,943억원)도 제외 가능성 높음

[산업재] 에코프로에이치엔(A383310)은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6,171억원 규모이며, 산업재 섹터의 누적시총비중 68%와 구성종목순위 147%로 제외 가능성이 높음. 성일하이텍(A365340, 6,589억원), 현대힘스(A460930, 6,628억원)도 제외 가능성 높음. 현대힘스는 2026년 3월 하이젠알앤엠 투자주의환기 지정으로 예비종목 1순위 수시 편입 후 잔류조건 미충족

[소재] 동화기업(A025900)은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4,935억원 규모이며, 소재 섹터의 누적시총비중 59%와 구성종목순위 136%로 제외 가능성이 높음

[자유소비재] 골프존(A215000)은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3,487억원 규모이며, 자유소비재 섹터의 누적시총비중 43%와 구성종목순위 167%로 제외 가능성이 높음. 에코앤드림(A101360, 3,510억원)도 제외 가능성 높음

[금융] 우리기술투자(A041190)는 4월 27일 현재 평균 시가총액 약 6,337억원 규모이며, 금융 섹터의 누적시총비중 35%와 구성종목순위 125%로 제외 가능성이 높음

표 2. 코스닥 150 편입, 편출 예상 종목 (편입: 15종목, 편출 15종목)

구분	종목명	섹터	구분	종목명	섹터
편입	원익홀딩스	정보기술	편출	솔트룩스	정보기술
편입	파두	정보기술	편출	셀바스AI	정보기술
편입	성호전자	정보기술	편출	엠로	정보기술
편입	아이티센글로벌	정보기술	편출	서울반도체	정보기술
편입	브이엠	정보기술	편출	제우스	정보기술
편입	대한광통신	정보기술	편출	미코	정보기술
편입	오름테라퓨틱	헬스케어	편출	바이넥스	헬스케어
편입	현대무백스	산업재	편출	원텍	헬스케어
편입	썬트렉아이	산업재	편출	에코프로에이치엔	산업재
편입	휴림로봇	산업재	편출	성일하이텍	산업재
편입	삼표시멘트	소재	편출	현대힘스	산업재
편입	에이치브이엠	소재	편출	동화기업	소재
편입	삼현	자유소비재	편출	골프존	자유소비재
편입	한라캐스트	자유소비재	편출	에코앤드림	자유소비재
편입	미래에셋벤처투자	금융	편출	우리기술투자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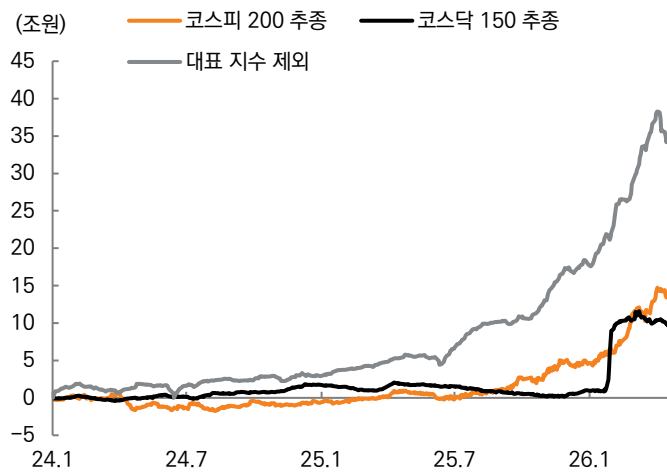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II. 정기 변경 영향 전망 및 전략: 유입 강도 +1%의 의미

ETF 중심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추종 자금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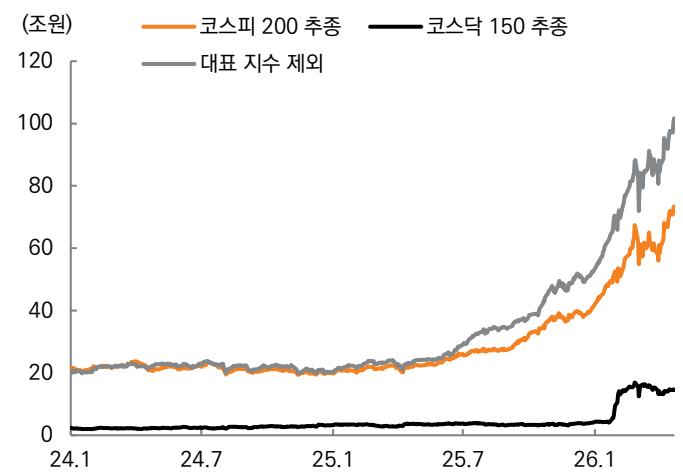
2025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식형 ETF 자금 유입이 구조적으로 확대됐다. 누적 자금 유입은 2024년 4조 원, 2025년 19.4조 원, 2026년 4월 누적 34.9조 원으로 증가했다. 순자산 총액은 2024년 43.5조 원, 2025년 97.7조 원에서 2026년 182.5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개인 직접투자 비중 감소와 ETF 중심 자산배분 선호 강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판단되며,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림 1. 한국 주식형 ETF 누적 자금 유입 추이: 유형별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한국 주식형 ETF 운용자산 추이: 유형별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코스피 200 지수를 직, 간접적으로 추종하는 국내 ETF의 순자산총액은 2025년 말 41조 원에서 2026년 4월 71조 원까지 증가했다. 인덱스 펀드 및 연기금까지 고려하면 최대 150~170조 원 가량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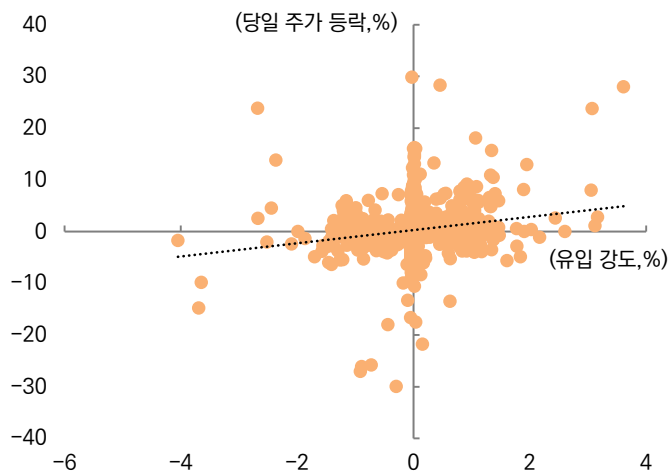
이번 정기 변경의 쟁점은 코스닥 150이다. 코스닥 150 ETF 순자산은 2025년 말 4조 원에서 2026년 4월(~4/22) 14.6조 원으로 +25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150 지수 상승률이 +28.8%임을 감안하면, 증가분의 대부분은 주가 상승이 아닌 순자금 유입으로 설명된다. 절대 규모는 코스피 200 ETF 대비 여전히 낮은 편이나, 코스닥 시장의 유동성 대비로는 영향도가 과거 대비 크게 높아졌다.

편입, 편출 이후 주가 동향

편출입 충격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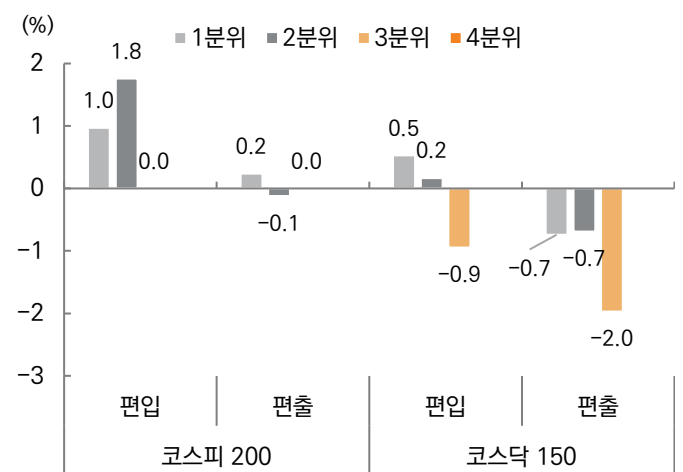
〈그림 3〉에서는 2025년 정기 변경에서 편입, 편출된 종목을 대상으로 유입 강도(유동 시가총액 대비 ETF 편출입 금액 비중)와 당일 주가 등락률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유입 강도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당일 주가 등락과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ETF 편출입 충격: 유동 시가총액 대비 강도 기준



주: 2025년 정기 변경에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ETF에서 편출입 된 종목 대상,
유입 강도는 ETF의 편출입 금액/유동 시가총액으로 산출,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ETF 편출입 충격: 시가총액 분위별 평균 수익률



주: 시가총액 분위는 해당 종목의 한국 시장 전체 내 분위
자료: 연합인포맥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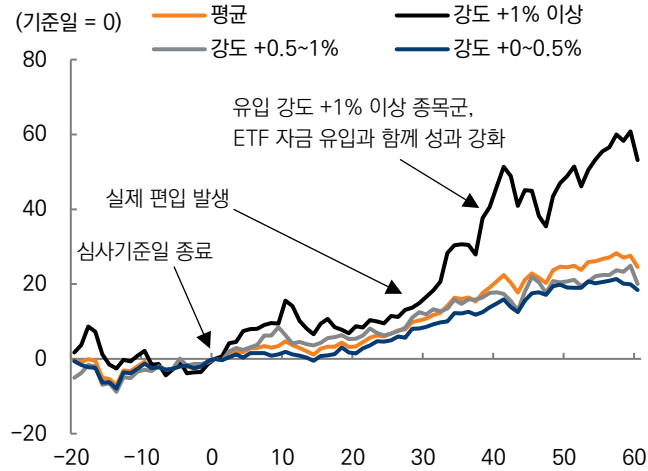
ETF 편출입의 충격은 시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시가총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수 방법론에 따라 시가총액 최하위(5분위)는 편출입 대상이 아니다. 코스피에서는 상대적으로 편입효과가 크게 났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편출 시점에 충격이 코스피 시장 대비 크게 작용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편입된 시가총액 3분위 종목은 경우의 수가 적어 극단값의 영향을 받았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 전후 주가 동향

정기 변경 이벤트에서 뚜렷한 상대 성과를 보인 것은 유동 시가총액 대비 1% 이상 자금 유입을 보인 종목이었다. 편출은 상대적으로 단기적 충격으로 작용했다. 다음 장 〈그림 5~6〉에서는 2025년 정기 변경에서 편입, 편출 종목의 심사기준 종료일 전후 주가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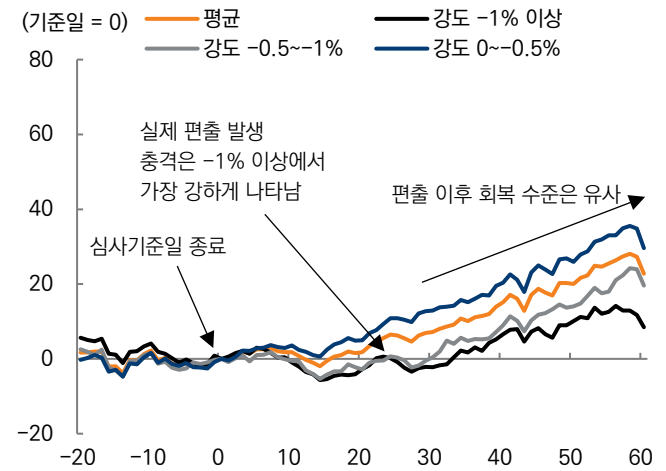
유형 내에서 가장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편입으로 인해 유동 시가총액 대비 +1% 이상 자금이 유입된 종목군이었다. 심사기준 종료일 이후 상대 성과가 가장 좋았다(다음 장 그림 5, 6). 편입일 당일 직후는 차익 실현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약세를 보이기도 하나, 편입 이후 ETF 등을 통해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상대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일시적 충격이 아닌 연속적인 자금 유입원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편 편출 종목의 경우 유동 시가총액 대비 -1% 이상 자금이 유출된 종목이 심사기준 종료일, 실제 편출입 시점에서 성과는 부진했으나, 이후 회복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다음 장 그림 6).

그림 5. '편입' 종목 '심사기준일' 전후 주가 동향(전20일/후60일)



주: 2025년 6월, 12월 정기 변경에서 편입된 종목의 심사기준 종료일 전후 수익률 추이,
유입 강도는 ETF의 편입금/유동 시가총액으로 산출,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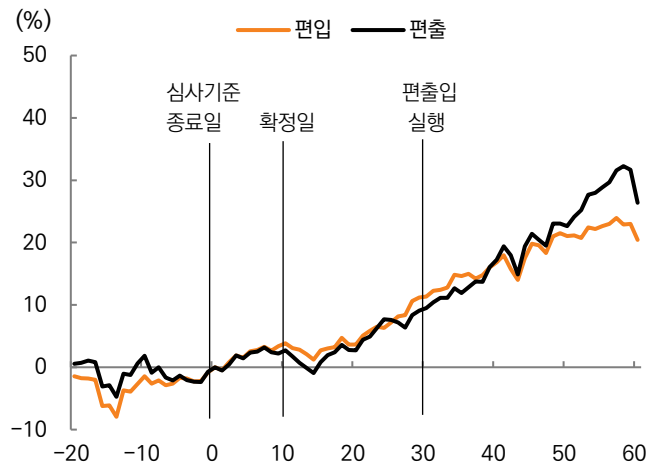
그림 6. '편출' 종목 '심사기준일' 전후 주가 동향(전20일/후60일)



주: 좌동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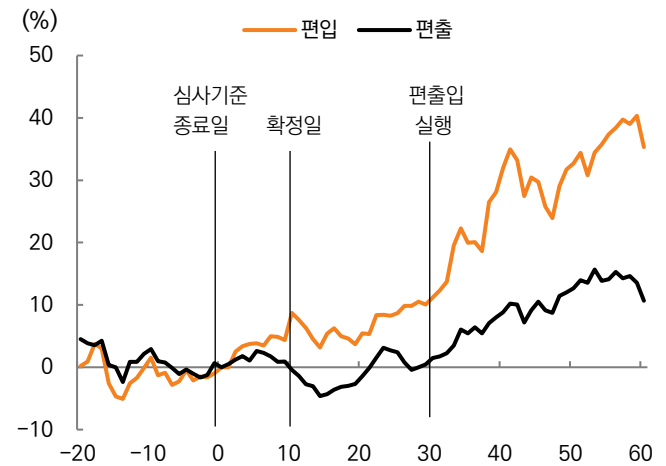
수익률 추이를 시장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의 영향이 편입, 편출에서 모두 크게 나타났다(그림 7, 8).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코스닥 시장에서 편출입 이벤트가 더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코스피 종목 '심사기준일' 전후 주가 동향(전20일/후60일)



주: 2025년 6월, 12월 정기 변경에서 편출입된 코스피 종목의 심사기준일 전후 수익률 추이,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코스닥 종목 '심사기준일' 전후 주가 동향(전20일/후60일)



주: 2025년 6월, 12월 정기 변경에서 편출입된 코스닥 종목의 심사기준일 전후 수익률 추이,
자료: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6월 변경 전략: 편입 이후 자금 유입 기대 종목에 주목

편입, 편출 종목을 대상으로 ETF 기준 예상 편출입 금액을 산출했다. 음영은 예상 편출입 금액이 시가총액 대비 $\pm 2\%$ 이상, 최근 20거래일 일평균 거래대금 대비 $\pm 200\%$ 이상 종목으로, 수급 충격이 가능하다. 공모 펀드까지 감안할 경우 해당 충격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6월 정기 변경에서는 유동 시가총액 비중 조절도 예정되어 있어, 예상 편출입 금액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표 3. 6월 정기 변경 예상 종목의 시가총액 및 편출입 예상 금액 (음영은 시총 대비 $\pm 2\%$ 이상, 거래대금 대비 $\pm 200\%$ 이상 변동 예상)

지수	구분	티커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억원)	ETF 잔고 (억원)	예상 편출입 금액(억원)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대비(%)
KOSPI 200	편입	A267270	HD건설기계	산업재	95,037	0	1,129	1.2	158.9
		A483650	달바글로벌	필수소비재	29,063	0	474	1.6	118.3
		A456040	OCI	소재	12,596	2	135	1.1	58.7
	편출	A114090	GKL	자유소비재	7,305	75	-75	-1.0	-273.0
		A005250	녹십자홀딩스	헬스케어	6,669	67	-67	-1.0	-511.8
		A004490	세방전자	자유소비재	9,009	100	-100	-1.1	-371.6
KOSDAQ 150	편입	A030530	원익홀딩스	정보기술	27,111	0	708	2.6	171.2
		A440110	파두	정보기술	40,711	0	1,473	3.6	233.7
		A043260	성호전자	정보기술	30,461	0	689	2.3	85.7
		A124500	아이티센글로벌	정보기술	12,530	0	485	3.9	384.8
		A089970	브이엠	정보기술	13,646	11	617	4.5	265.4
		A010170	대한광통신	정보기술	24,909	0	989	4.0	13.7
		A475830	오름테라퓨틱	헬스케어	18,996	0	554	2.9	291.8
		A100790	미래에셋벤처투자	금융	32,512	0	556	1.7	19.7
		A319400	현대무백스	산업재	34,972	0	703	2.0	118.1
		A099320	썬트렉아이	산업재	20,183	0	629	3.1	220.3
		A090710	휴림로봇	산업재	15,673	0	732	4.7	66.9
		A038500	삼표시멘트	소재	17,547	0	309	1.8	37.0
		A295310	에이치브이엠	소재	10,476	0	342	3.3	152.6
		A437730	삼현	자유소비재	18,200	0	283	1.6	249.5
		A125490	한라캐스트	자유소비재	6,096	1	187	3.1	106.4
	편출	A304100	솔트룩스	정보기술	3,142	158	-158	-5.0	-770.9
		A108860	셀바스AI	정보기술	3,703	188	-188	-5.1	-152.7
		A058970	엠로	정보기술	3,672	124	-124	-3.4	-719.5
		A046890	서울반도체	정보기술	8,478	252	-252	-3.0	-158.3
		A079370	제우스	정보기술	5,456	187	-187	-3.4	-251.2
		A059090	미코	정보기술	6,967	323	-323	-4.6	-212.6
		A053030	바이넥스	헬스케어	3,804	200	-200	-5.3	-1,191.9
		A041190	우리기술투자	금융	5,712	209	-209	-3.7	-357.3
		A383310	에코프로에이치엔	산업재	6,817	259	-259	-3.8	-357.7
		A365340	성일하이텍	산업재	9,659	393	-393	-4.1	-466.8
		A460930	현대힘스	산업재	7,422	169	-169	-2.3	-194.3
		A025900	동화기업	소재	6,026	77	-77	-1.3	-211.6
		A336570	원텍	헬스케어	6,892	193	-193	-2.8	-512.1
		A215000	골프존	자유소비재	3,200	110	-110	-3.4	-1,325.2
		A101360	에코앤드림	자유소비재	3,646	180	-180	-4.9	-852.9

주: 2026.4.27 기준, ETF 잔고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추종 ETF 한정, 현물을 보유한 레버리지 ETF의 경우 현재 현물 주식 보유 금액을 반영,

예상 편출입 금액은 현재 시가총액 기준 예상 비중 반영, 거래대금은 최근 20거래일 일평균 수치 대비 %

자료: 연합인포맥스, FnGuid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